



민주 이재명 국힘 윤석열

대선 레이스 4개월 진검승부

14회 광주비엔날레 2023년 4월 열린다

제 14회 광주비엔날레가 2023년 4월 열린다. 비엔날레는 2000년 3회 대회부터 2년 주기, 짝수해에 열려왔고 제 13회 행사는 코로나 19로 1년 연기돼 올 4월부터 6월까지 개최됐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비엔날레 개최 시기와 관련 2022년과 2023년을 두고 광주비엔날레 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2023년 개최로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내년엔 행사를 진행할 경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준비 기간도 촉박해 광주비엔날레 위상에 맞는 전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전시기간은 기존의 66일보다 확대하는 의견도 있어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 예정이다. 13회 행사는 기존 66일에서 87일로 행사 기간을 늘렸지만 코로나 19로 일정을 축소해 진행했다.

전시를 이끌 차기 예술감독은 올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주제 선정, 작가 선정 등의 과정을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초 비엔날레가 짝수해에 열렸던 점을 감안, 15회 행사를 다시 2024년에 개최하는 방안은 문화계 등과의 차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권 연장이나 교체냐... “중도층을 잡아라”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선출함에 따라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는 4자 구도 속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 4면>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이슈, 코로나19 방역, 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20~30세대 및 중도층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민심의 선택에 대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진보 진영의 이재명-심상정 후보 간 연대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일단, 대선이 12월 앞으로 다가온 7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심은 정권연장론보다는 정권교체론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로감과 피폐한 민생 경제, 부동산 가격 급등, 조국 사태 등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부동산·코로나·민생경제 주요 변수... 20~30 선택이 결과 좌우
이재명-심상정 후보 연대,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촉각’

후보의 지지율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국 두 후보의 미래 비전 등 경쟁력에 의해 승부가 갈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대중동 특혜 개발 의혹을 불식시키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으로 지적된다. 공정과 성장을 담론으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20~30세대와 60~70세대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 여기에 영남권에서 최소 35% 이상의 지지율을 담아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영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것과 관련, 이 후보가 정치 초보인 윤 후보를 상대로 TV 토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일궈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원팀을 내세워 구성된 ‘공룡 선대위’가 아직까

지 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흔들리는 민심에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재명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당정 간의 재난지원금 갈등이 반영하듯 이재명의 진심을 민생에 접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론이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은 접전 양상이다.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윤 후보는 경선에서 민심에 뒤지고도 당사에서 역전, 대선 주자로 선출됐다. 당장, 경선 후유증으로 20~30 당원들의 집단 탈당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다시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뜻이다. 윤 후보가 본선에서도 ‘개 사과’를 내미는 실

수를 거듭하고 보수의 틀에서 머무른다면 대선 승리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대와 지역의 구도를 뛰어넘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벗어나는 ‘윤석열표 그랜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광주 방문에서부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행보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두 후보 모두 3%~5%대의 고정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 완주 여부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승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합당을 매개로 하는 단일화와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연정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어느 한 진영에서 연대 및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다른 진영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와 연대는 오히려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어 4자 구도로 대선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진보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선택도 주목되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로 선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수도권으로 북상하지 않는다면 정권재창출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았다. 윤 후보도 호남에서의 10%대의 지지율 확보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과 제대로 된 공약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위 부르는 가을비 광주·전남 기온 ‘뚝’

8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비와 함께 기온이 급락하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8일까지 5~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8일 최저기온은 10도 안팎, 최고기온은 13도 수준을 보이면서 지난 주에 비해 10도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9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낮아져 최저기온 5도 안팎, 최고기온은 1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8일 광주와 전남해안, 전남서부내륙에 시속 35~60km,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져 출갓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일상회복 첫 주말 광주 유희가 '불야성' ▶6면
- 그린라인·자연환경 무등기 야구 우승 ▶18면
- 예술가 공간 - 렌바흐 하우스 미술관 ▶22면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